

2017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회의 의사록




2018.01.

한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회의 심의[자문] 내역

No	분류	심의[자문] 내역	결과[요약]
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학칙 제84조(부설기관) 일 부개정(안)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정보대학 학과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 - 디자인대학 학과명칭 변경 ■ 학칙 제47조 별표 2 학사학위 수여구분 일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학위명 명시 - 2019년 신입생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가결
2	대학의 예산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및 부속병원 2017학년도 추 경예산 및 2018학년도 본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완료 : 예산자료 제출 시 1년간의 기획 및 운영 계획이 나타 나도록 자료 준비 요청

첨부 1. 2017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1부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17학년도 제7차)		의장	
일 시	2018. 01. 24(수) 14:00	장 소	신본관 2회의실
참 석 (13명)	[교수평의원] 김동환, 김병철, 김원규, 박경진, 오차환, 유진 [직원평의원] 박신희, 이인덕, 엄태준 [학생평의원] 한장훈(S), 김동욱(E), 조재형(G) [외부평의원] 이임성		
불 참 (1명)	[외부평의원] 김양국		
<p>■ 회의진행</p> <p>1. 개회</p> <p style="padding-left: 40px;">의장이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p> <p>2. 제6차 회의록 검토 및 확정</p> <p style="padding-left: 40px;">의장이 제6차 의사록 검토를 요청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확정함을 선언하다.</p> <p>3. 안건1 (대학평의원회 직무수당 관련 논의)</p> <p>1) 이승철 경영부총장이 학교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동체로써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내자고 하다.</p> <p>2)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위상에 관하여 경영진차원에서 배려해달라고 하다.</p> <p>3) 의원1이 현재 교수들의 마음이 많이 다친 상황이니 교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를 요청 하다.</p> <p>4) 이승철 경영부총장이 교수들의 마음이 다친 이유에 대해 묻다.</p> <p>5) 의원1이 학교 측과의 불소통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다.</p> <p>6) 의원2가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불소통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하다.</p> <p>7) 의원3이 학교 측에서 상의도 없이 계약직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소통인지 묻고, 임금단체협약의 결렬 등 소통의 부재가 크다고 하다.</p> <p>8) 이승철 경영부총장이 계약직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계약직원을 줄이면서 정규직을 더 뽑겠다는 의미이며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다. 학교 측에 의사를 잘 전달 해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다.</p> <p>9) 의장이 앞으로 오늘과 같은 대화의 시간을 종종 갖자고 하다.</p> <p>10) 의원1이 대학평의원회 수당에 관한 의견이 기획처장 단독의 생각인지, 학교 측의 생각인지 묻다.</p> <p>11) 정현철 기획처장이 대학평의원회 수당과 관련한 논의는 정원상 대학평의원회 전 의장과 논의된 내용이라고 하다. 전 의장의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으며 수당 관련 논의가 1년간 지속되었다고 하다. 또한 이 자리에는 수당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은 의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 해당 문제는 추후 관련된 의원들과 따로 논의하는 것이 어떤지 묻다.</p> <p>12) 의원2가 대학평의원회 수당문제는 대학평의원회 모두가 있을 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하</p>			

다.

- 13) 정현철 기획처장이 해당 안건은 의장이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인데 현재 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하다.
- 14) 의원2가 해당 안건은 전, 현 의원들과의 어떤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결과이므로 현재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하다.
- 15) 의원4가 이 안건은 대학평의회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다. 수당과 관련하여 기획처장에게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이 없던 것도 문제라고 하다.
- 16) 정현철 기획처장이 공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보류중이라고 하다. 또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평의회 위상을 낮출 생각이 없다고 하다. 학교 발전을 위해 이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으나, 전 의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다. 또한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대해 잘 몰랐던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하다.
- 17) 의원1이 대학평의원 중 당연직이 아닌 의원은 없다고 하다. 기획처장이 대학평의원에게 자원 봉사하라고 말했던 것이 문제라고 하다. 수당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에 대한 대가라고 하다.
- 18) 정현철 기획처장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드린다고 하다.
- 19) 의장이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학교 측과 논의 후 회의수당을 결정하였으나, 본인의 실수로 의원들 모두에게 논의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불찰이라고 하다.
- 20) 의원2가 소통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다.
- 21) 의원5가 정현철 기획처장이 지난 회의에서 수당을 기부한다고 말했다고 하다. 또한 위임할 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이 될 줄 알았으나 위임결과가 터무니없었다고 하다. 내부적 소통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다.
- 22) 정현철 기획처장이 오해가 있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다고 하다.
- 23) 의장이 논의 결과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자고 하다.
- 24) 의원6이 직무에 대한 위상을 보상받지 못하고 해당 사항이 돈문제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다. 또한 타 학교와 비교해서 이야기했을 때 대학평의원 수당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타 학교와 비교하는 방침을 고수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또한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것과 대응해서 대학평의회도 심의안건을 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하다.
- 25) 의원2가 본부에 유리한 것은 타 대학과 비교해서 압박하고, 불리한 것은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는 무시한다는 것은 이중 잣대이며 모든 대학이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학교만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다.
- 26) 의원4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2017학년도 직무수당을 원상태로 지급하던지 학교전체 보직수당을 없앴다는 것에 대한 답변만 주면 해결 될 문제라고 하다.
- 27) 정현철 기획처장이 2016학년도 말에 수당삭감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며, 1년 반 동안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전 대학평의회 의장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다.
- 28) 의원1이 학교재정이 어려운데 왜 대학평의원 수당만 삭감하고 처장수당은 삭감하지 않는지 묻는다.
- 29) 정현철 기획처장이 외부의원들의 수당을 없앨 수가 없었는데 외부의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다.

4. 안건2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 1) 정성훈 공과대학장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 2) 의원1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묻다.
- 3) 정성훈 공과대학장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및 LINC+사업비로 운영된다고 하다. FAB LAB은 기부금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다.
- 4) 의원6이 INDUSTRY 4.0의 주요목적에 대해 묻다.
- 5) 정성훈 공과대학장이 INDUSTRY 4.0을 대비하여 전체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할 목적이며, 현재 공과대학 안에 INDUSTRY 4.0을 만들어 놓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정부과제에 지원할 때 상당한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다.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신설했다고 하다.
- 6) 의원6이 적어도 10년은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다.
- 7) 의원5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비가 중단됐을 경우 운영자금이 보장되어있는지 묻다.
- 8) 정성훈 공과대학장이 센터 신설 이외에 크게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
- 9) 이한승 ERICA 교무처장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 10) 의원2가 당시에는 왜 이러한 학과 명칭을 선택했는지 묻고, 학과 내용 변경없이 학과 명칭만 변경되는 것인지 묻다.
- 11) 이한승 ERICA 교무처장이 당시 디자인대학의 융합적 발전을 위해 해당 명칭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고, 학과명칭 변경이유는 국회의원인 학과 명칭 모호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하다. 학과명칭 변경에 대하여 학과의 본질적인 변경은 없다고 하다.
- 12) 의원6이 시대적 변화에 따를 수는 있지만 지속성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한다고 하다.
- 13) 의원7이 실제로 명칭변경으로 인해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명칭변경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다.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학과들의 명칭 변경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하다. 또한 학과 명칭 때문에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달라고 하다.
- 14) 이한승 ERICA 교무처장이 오늘 내용을 학교에 잘 전달하여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다.
- 15) 의장이 무분별한 학과 명칭 등 변경의 불이익은 학생이 받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해달라고 하다.

5. 안건3 (한양대학교 2017학년도 추경예산 및 2018학년도 본예산 자문)

- 1) 정현철 기획처장이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다.
- 2) 김동환 예산팀장이 서울캠퍼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3) 운영학 기획예산팀장이 ERICA캠퍼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4) 의원2가 충실한 자문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하기를 요청하고,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자문 전 검토할 시간을 만들어달라고 하다. 또한 예산(안)에 있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증감액 뿐 아니라 증감비율도 추가하면 정보전달에 있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다. 또한 법인전입금 중 사학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5) 김동환 예산팀장이 정부에서 사학연금은 100% 법인 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78%만 부담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 하다.
- 6) 정현철 기획처장이 자료준비를 위해 다음부터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

면 좋겠다고 하다.

- 7) 의원5가 등록금 인상과 대학원 학생 충원율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하다.
- 8) 정현철 기획처장이 대학원 학생 충원율의 하락은 우리대학 뿐 아니라 타 대학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다.
- 9) 의원4가 입학정원을 줄인 만큼 정부에서 지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부지원 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하다.
- 10) 김동환 예산팀장이 CK사업, CORE사업 등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다.
- 11) 의원4가 교원상여금이 20억이 늘어난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지 묻고, 교원상여금만 늘고 직원상여금은 늘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다.
- 12) 정현철 기획처장이 운영상의 문제일 뿐 실질적인 급여인상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다.
- 13) 의원1이 외국학교의 사례를 들어 기획 또는 운영에 있어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부금 모집이 중요하다고 하다.
- 14) 정현철 기획처장이 예상보다 재단전입금이 31억 정도 더 들어왔고 재단이 현금성자산보다는 부동산등 비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전입금 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다. 그리고 현재 기부금을 통해 건물 및 강의실 등을 확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다.
- 15) 의원3이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처럼 건물을 많이 짓는 경우가 없고, 사람이 소외되는 학교가 없다고 하다. 직원감축의 경우 연장근무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다. 학교 측에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다.
- 16) 의원8이 정원을 감축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단기적인 국고사업뿐인지 묻다.
- 17) 정현철 기획처장이 국고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정원감축에 대한 정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정원감축을 유도하였고, 이제는 그러한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
- 18) 의원7이 직원, 교원, 학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재단이 학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다. 법인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직원, 교원, 학생에게 투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다.
- 19) 정현철 기획처장이 법인에서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중이며,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 최저임금 상승 등 학교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감안해달라고 하다.
- 20) 의원9가 예산 자문에 대한 고민, 해결방안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 21) 의원6이 2018학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양대학교의 2018학년도 운영전략방안들이 보여야 하는데 아쉽게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 대내외 환경은 변화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다.
- 22) 정현철 기획처장이 그러한 내용들이 숫자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다음번에는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을 통해 보충하겠다고 하다.

6. 안건4 (부속병원 2017학년도 추경예산 및 2018학년도 본예산 자문)

- 1) 이오영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서울병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2) 영종훈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구리병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3) 의원2가 급여인상은 교원과 직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묻다.
- 4) 이오영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다.

- 5) 의장이 순이익 대비 학교전입금 비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하다.
- 6) 이오영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하다.
- 7) 의원2가 한양대학교 병원이 의료사고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병원의 신뢰하락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다.
- 8) 이오영 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의료사고 비율이 타 병원과 비교하여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하다. 앞으로는 의료사고 비율을 줄이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하다.
- 9) 의원4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규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하다. 또한 고객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잉진료를 지양해야 한다고 하다.
- 10) 영종훈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현재 구리병원에서는 예약이 다 차서 신규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병원비가 15%정도 저렴하다고 하다.
- 11) 의원6이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의 의료외수입에 편차가 있는 이유를 묻다.
- 12) 영종훈 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구리병원의 경우 건물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다.
- 13) 의원6이 의료외수입의 경우 항목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아서 자료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병원 운영 계획을 알기 어렵다고 하다.
- 14) 함두식 서울병원 기획팀장이 다음번에는 해당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하다.
- 15) 의장이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은 예산(안)에 대한 자문이 목적이므로 자료를 목적에 맞게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다.

7.폐회

의장이 추가적으로 기타 논의할 사항이 더 있는지를 묻고, 2017학년도 대학평의원회 제7차 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17학년도 제7차 회의 결과 요약

1. 안건 1 (대학평의원 직무 수당 관련 논의)

: 2017학년도 제2차 임시회의 결과를 기한을 명시한 공문으로 재발송함.

2. 안건 2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 심의 가결

3. 안건 3 (한양대학교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18학년도 본예산 자문)

: 자문 완료

4. 안건 4 (부속병원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18학년도 본예산 자문)

: 자문 완료

“끝”

유영준
유영준 권익과

김동현
김동현 권익과

김영민
김영민 권익과

김영민
김영민 권익과

김정환
김정환 권익과

김인민
김인민 권익과

김재훈
김재훈 권익과

김영민
김영민 권익과

김영민
김영민 권익과

김영민
김영민 권익과

김영민
김영민 권익과

김영민
김영민 권익과

김영민
김영민 권익과

김영민
김영민 권익과

김영민 권익과